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정오표(0331)

페이지	수정 전	수정 내용
p.24	문제 08 – 문제 해석 ㉠ 갔지: [갇찌]로 발음됩니다. '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갇'이 된 다음, 'ㄷ' 받침 뒤에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 모두 음운의 대치 현상에 속합니다.	[내용 수정] 문제 08 – 문제 해석 ㉠ 갔지: [갇찌]로 발음됩니다. '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갇'이 되고, [ㄷ]으로 발음되는 받침 'ㅆ'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 모두 음운의 대치 현상에 속합니다.
p.40	문제 19 – 문제 해석 ② [O] '섧다'는 '서럽다'의 준말이며, '서럽다'는 'ㅂ' 불규칙 용언입니다. '서럽다'는 어간의 받침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뀌어 '설워 – 설우니 – 설운'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섧은'을 '설운'으로 고친 표기는 옳습니다.	[오타 수정] 문제 19 – 문제 해석 ② [O] '섧다'는 '서럽다'의 준말이며, '섧다'는 'ㅂ' 불규칙 용언입니다. '섧다'는 어간의 받침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뀌어 '설워 - 설우니 – 설운'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섧은'을 '설운'으로 고친 표기는 옳습니다.
p.41	문제 21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밑줄 삭제] 문제 21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p.41	문제 22 ⑤ 사고 없는 공사가 되도록 안전에 유의하시오.	[밑줄 추가] 문제 22 ⑤ 사고 없는 공사가 되도록 안전에 유의하시오.
p.41	문제 22 – 문제 해석 ② [X]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는'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해설 수정] 문제 22 – 문제 해석 ② [X] '크다'는 의미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 모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이므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p.53	문제 09 **비통사적 합성어** 꺽쇠, 굶주리다, 부슬비, 검붉다 묵밭, 오가다 늦더위, 척척박사	[내용 추가] 문제 09 **비통사적 합성어** 꺽쇠, 굶주리다, 부슬비, 검붉다 검버섯, 묵밭, 오가다 늦더위, 척척박사
p.57	문제 19 ③ 최근 중국산 참깨의 가격이 매우 하락하였다.	[밑줄 수정] 문제 19 ③ 최근 중국산 참깨의 가격이 매우 하락하였다.
p.64	문제 08 ❷ **두 자리 서술어** ㄹ. 대칭 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둘이거나 주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예 • 영희와 엄마는 닮았다.('와'는 접속 조사로 쓰여 주어의 대상이 둘인 문형임) •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주어와 부사어가 있는 문형임)	[기특+플러스 내용 추가] 문제 08 ❷ **두 자리 서술어** ㄹ. 대칭 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둘이거나 주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예 • 영희와(주어) 엄마는 닮았다.('와'는 접속 조사로 쓰여 주어의 대상이 둘인 문형임: 두 자리 서술어) • 영희는(주어) 엄마와(부사어) 닮았다.('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주어와 부사어가 있는 문형임: 세 자리 서술어)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75	문제 06 ① [X]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 어미 따위를 말합니다. ㉠에서는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이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조사 '께서'와 서술어 '잡수시다'를 이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내용 수정] 문제 06 ① [X]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 어미 따위를 말합니다. ㉠에서는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이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생략된 부사어 '어머니께'를 서술어 '드린'을 이용하여 높이고 있을 뿐 객체를 높이는 형식 형태소가 없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P.81	문제 02 – 문제 해석 • 정도 반의어 : 알다 – 모르다, 빠르다 – 느리다, 높다 – 낮다, 밝다 – 어둡다, 좋다 – 싫다, 깨끗하다 – 더럽다 • 방향 반의어 : 가다 – 오다, 아래 – 위, 부모 – 자식, 주다 – 받다 • 상보 반의어: 남성 –여성, 살다– 죽다, 참 – 거짓, 있다 – 없다, 맞다 – 틀리다	[예시 이동] 문제 02 – 문제 해석 • 정도 반의어 : 빠르다 – 느리다, 높다 – 낮다, 밝다 – 어둡다, 좋다 – 싫다, 깨끗하다 – 더럽다 • 방향 반의어 : 가다 – 오다, 아래 – 위, 부모 – 자식, 주다 – 받다 • 상보 반의어: 남성 –여성, 살다– 죽다, 참 – 거짓, 있다 – 없다, 맞다 – 틀리다, 알다 – 모르다

p.83	[문제 수정] 문제 06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의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문제 수정] 문제 06 **"가려던 터에 그가 먼저 찾아왔다."의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p.83	문제 06 – 문제 해석 의존 명사 '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의 '터'는 문맥상 첫 번째 의미인 예정이나 추측, 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해설 수정] 문제 06 – 문제 해석 의존 명사 '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장은 어미 '–던' 뒤에 쓰여 문맥상 두 번째 의미인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냅니다.
p.94	문제 02 – 문제 해석 D: '내일'이 '다음 날'인지 '다가올 앞날(미래)'인지 모호하므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	[해설 수정] 문제 02 – 문제 해석 D: '내일'이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인지 '다가올 앞날(미래)'인지 모호하므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
p.94 ~ 95	문제 02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문장의 중의성 한 문장이 문장 성분의 수식 구조 혹은 문법적 성질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ㄱ. 주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 – – – – – – ㅁ. 부정 범위에 의한 중의성	[기특+플러스 수정] 문제 02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문장의 중의성 1. 구조적 중의성 한 문장이 문장 성분의 수식 구조 혹은 문법적 성질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ㄱ. 주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 – – – – – – ㅁ. 영향권 중의성(부정 범위에 의한 중의성)
p.97	문제 07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문제 수정] 문제 07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p.110	문제 02 ② 모음조화 현상은 중세 국어보다 현대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제 수정] 문제 02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p.110	문제 02 – 문제 해석 ② [X] 15세기에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ㆍ(아래 아)'가 소실되면서 현대에는 약화되었습니다. ③ [O] 주격 조사 '가'는 15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16세기부터 등장하여 17세기에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 – – – – – – 답 ②	[정답 수정] 문제 02 – 문제 해석 ② [O] 15세기에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ㆍ(아래 아)'가 소실되면서 현대에는 약화되었습니다. ③ [X] 주격 조사 '가'는 15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16세기부터 등장하여 17세기에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 – – – – – – 답 ③
p.110	문제 01 나랏 말ᄊᆞ미 듕귁(中國)에 달아 문ᄌᆞ(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ᄇᆡᆨ성(百姓)이 ㉠니르고져 홇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펴디 몯 ᄒᆞᆫ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윙(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ᄌᆞᆼ(字)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수ᄫᆡ 니겨 날로 ᄲᅮ메 ᄠᅥᆫ한(便安)킈 ᄒᆞ고져 ᄒᆞᆫ ᄯᅳᄅᆞ미니라.	[밑줄 삭제] 문제 01 나랏 말ᄊᆞ미 듕귁(中國)에 달아 문ᄌᆞ(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ᄇᆡᆨ성(百姓)이 ㉠니르고져 홇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펴디 몯 ᄒᆞᆫ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윙(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ᄌᆞᆼ(字)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수ᄫᆡ 니겨 날로 ᄲᅮ메 ᄠᅥᆫ한(便安)킈 ᄒᆞ고져 ᄒᆞᆫ ᄯᅳᄅᆞ미니라.
p.111	문제 02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 뮐•씨 ㉡곶 : 됴•코 여•름 •하ᄂᆞ•니하ᄂᆞ니 :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오타 삭제] 문제 02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 뮐•씨 ㉡곶 : 됴•코 여•름 •하ᄂᆞ•니 :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p.125	문제 08 ① 구안와사/구완괘사	[오타 수정] 문제 08 ① 구안와사/구안괘사
p.129	문제 18 – 문제 해석 ③ [O] '스물두째'가 바른 표기입니다.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두째'로 표기합니다. 다만, '스물 두 개째'를 나타낼 경우에는 '스물둘째'로 표기합니다.	[띄어쓰기 수정] 문제 18 – 문제 해석 ③ [O] '스물두째'가 바른 표기입니다.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두째'로 표기합니다. 다만, '스물두 개째'를 나타낼 경우에는 '스물둘째'로 표기합니다.

p.142	문제 02 – 문제 해석 ② [O] '가까워진다'는 '가깝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용언의 기본형 '가까워지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 – – – – – – ④ [X] 겹받침 어근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넓다'의 '넓–'은 형태가 변합니다. '넓죽하다', '넓적하다'는 '넓–'의 형태를 밝혀 적고, '널따랗다', '널찍해서'는 '넓–'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밑줄 친 단어는 '넓죽하다'가 활용된 형태이므로 '넓–'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맞습니다.	[해설 수정] 문제 02 – 문제 해석 ② [O] '가까워진다'는 형용사 '가깝다'에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지다'가 결합하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 – – – – – – ④ [X] 겹받침 어근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 '넓다'의 '넓–'은 형태가 변합니다. '넓죽하다', '넓적하다'는 '넓–'의 형태를 밝혀 적고, '널따랗다', '널찍하다'는 '넓–'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밑줄 친 단어는 '넓죽하다'가 활용된 형태이므로 '넓–'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맞습니다.
p.147	문제 12 – 문제 해석 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날 때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OX 추가] 문제 12 – 문제 해석 ① [X]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날 때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p.150	문제 21 ② 주인이 놀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타 수정] 문제 21 ② 주인이 놀라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p.161	[해설 수정] 문제 18 – 문제 해석 ④ [X] 선지에서 '–지'는 어미이므로 '옳은지 틀린지', '갈지 말지', '먹을지 말지' 등과 같이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반면,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떠난∨지 10년이 되었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해설 수정] 문제 18 – 문제 해석 ④ [X] 선지에서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옳은지 틀린지', '갈지 말지', '먹을지 말지' 등과 같이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반면,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떠난∨지 10년이 되었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p.164	문제 22 – 문제 해석 ④ [O] '뿐'은 '대로', '만큼'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체언 다음에 오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따라서 선지처럼 '웃고만 있을∨뿐이지', '가족에게뿐만 아니라'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조사는 여러 개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모두 붙여 쓰므로, '가족에게뿐만'과 같이 붙여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타 수정] 문제 22 – 문제 해석 ④ [O] '뿐'은 '대로', '만큼'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체언 다음에 오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따라서 선지처럼 '웃고만 있을∨뿐이지',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조사는 여러 개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모두 붙여 쓰므로, '가족들에게뿐만'과 같이 붙여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p.166	문제 02 – 문제 해석 ③ [X]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입니다. (예)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줄표보다 길이가 잚은 붙임표(–)는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쓰거나,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오타 수정] 문제 02 – 문제 해석 ③ [X]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입니다. (예)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줄표보다 길이가 짧은 붙임표(–)는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쓰거나,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p.173	문제 05 – 문제 해석 ④ [X] '조합', '협회' 등을 의미하는 'union'의 발음은 [juniən]이며,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유니언'으로 표기합니다. 'class'의 표기는 '클래스'입니다. 한편,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는 세칙에 따라 'quarter[kwɔ:tə]'는 '쿼터'가 맞는 외래어 표기입니다.	[오타 수정] 문제 05 – 문제 해석 ④ [X] '조합', '협회' 등을 의미하는 'union'의 발음은 [juniən]이며,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유니언'으로 표기합니다. 'top class'의 표기는 '톱 클래스'입니다. 한편,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는 세칙에 따라 'quarter[kwɔ:tə]'는 '쿼터'가 맞는 외래어 표기입니다.
p.175	문제 11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con–'으로 시작되는 외래어 표기 **❶ 'con–'으로 표기하는 경우** 예 콘사이스, 콘서트, 콘센트, 콘셉트, 콘테스트 **❷ 'con–'으로 표기하는 경우** 예 리모컨, 에어컨, 컨디션, 컨테이너	[기특+플러스 예시 추가] 문제 11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con–'으로 시작되는 외래어 표기 **❶ 'con–'으로 표기하는 경우** 예 콘사이스, 콘서트, 콘센트, 콘셉트, 콘테스트, 콘택트렌즈 **❷ 'con–'으로 표기하는 경우** 예 리모컨, 에어컨, 컨트롤, 컨디션, 컨테이너
p.183	문제 11 – 문제 해석 ③ [X] 뒷 문장의 서술어 '당했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사직 처리 되었고, 이번 달에는 김 과장이 감봉 처분을 당했다.' 등과 같이 고쳐야 옳습니다.	[띄어쓰기 수정] 문제 11 – 문제 해석 ③ [X] 뒷 문장의 서술어 '당했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사직 처리되었고, 이번 달에는 김 과장이 감봉 처분을 당했다.' 등과 같이 고쳐야 옳습니다.
p.193	문제 05 ③ 부친 : 김 서방, 이리 와서 이 책들을 옮겨 주게. 아들 : 네, 아버님.	[문제 수정] 문제 05 ③ 장인 : 김 서방, 사돈어른은 평안하신가? 사위 : 네, 저희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p.198	문제 07 – 기특+플러스 거리 |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해설 추가] 문제 07 – 기특+플러스 거리 |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
p.211	문제 03 – 문제 해석 ① [O] 同病相憐(한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兩寡分悲(두 양, 적을 과, 나눌 분, 슬플 비)는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타 수정] 문제 03 – 문제 해석 ① [O] 同病相憐(한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兩寡分悲(두 양, 과부 과, 나눌 분, 슬플 비)는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p.214	문제 10 – 문제 해석 ④ [X] 上山求魚(위 상, 뫼 산, 구할 구, 물고기 어)는 산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연목구어를 쓰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어색한 의미가 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타 수정] 문제 10 – 문제 해석 ④ [X] 上山求魚(위 상, 뫼 산, 구할 구, 물고기 어)는 산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상산구어를 쓰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어색한 의미가 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p.222	문제 02 – 문제 해석 ③ [X] '묵정밥'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을 의미하며 대응되는 한자어는 '陳田(늘어놓을 진, 밭 전)'입니다. '沃土(물 댈 옥, 흙 토)'는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오타 수정] 문제 02 – 문제 해석 ③ [X] '묵정밭'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을 의미하며 대응되는 한자어는 '陳田(늘어놓을 진, 밭 전)'입니다. '沃土(물 댈 옥, 흙 토)'는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p.258	문제 16 '있다, 없다'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는 '–는'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동사, 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밑줄 삭제] 문제 16 '있다, 없다'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는 '–는'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동사, 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table>
<tr><td>p.263</td><td>문제 23
⑤ 반려동물의 시장 현황

문제 23 – 문제 해석
⑤ [X] 반려동물의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td><td>[문제 및 해설 수정]
문제 23
⑤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

문제 23 – 문제 해석
⑤ [X]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td></tr>
<tr><td>p.267</td><td>문제 30
위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td><td>[오타 수정]
문제 30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td></tr>
<tr><td>p.312</td><td>문제 15
④ 불운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td><td>[문제 수정]
문제 15
④ 불운한 사건만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td></tr>
<tr><td>p.313</td><td>문제 16 – 기특+플러스
<table><tr><td>1인칭 관찰자 시점</td><td>• 작품 속 '나'가 자신이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서술하는 시점이다.
예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td></tr></table></td><td>[기특+플러스 오타 수정]
문제 16 – 기특+플러스
<table><tr><td>1인칭 관찰자 시점</td><td>• 작품 속 '나'가 자신이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서술하는 시점이다.
예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td></tr></table></td></tr>
<tr><td>p.333</td><td>문제 01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제저녁,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네. 그 모습이 불쌍해 마음이 매우 아팠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네."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다.
"어제저녁, 어떤 사람이 화로에서 이[蝨]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네.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네."</td><td>[밑줄 추가]
문제 01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제저녁,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네. 그 모습이 불쌍해 마음이 매우 아팠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네."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다.
"어제저녁, 어떤 사람이 화로에서 이[蝨]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네.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네."</td></tr>
</table>

p.355	문제 31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 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띄어쓰기 수정] 문제 31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p.358	문제 34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작품 분석 주제: ①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불평·원망하지 말며 사리에 순응하고 성실야 함	[기특+플러스 오타 수정] 문제 34 – 기특+플러스 **기특 ⊕ 플러스** 작품 분석 주제: ①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불평·원망하지 말며 사리에 순응하고 성실해야 함

※ 추가 정오표는 '네이버 카페'와 '윌비스 고시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